6백여 회원, 진료·연구 병행하는 대한당뇨병학회

1960년 12명의 발기인회 구성후
8년만인 68년10월 창립된 대한당뇨병학회(회장 許甲範)는
처음 30명이던 회원이 지금은 6백여명으로 늘어나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다양한 학술연구활동과
당뇨병 환자들의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968년 10월 4일 창립한 이래 현재 6백명의 회원들이 학술연구와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상에서도 당뇨병 환자들의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학회의 연혁과 현황, 사업실적 및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초대 회장에 김응진교수

대한당뇨병학회는 1959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 교환교수로 있던 김응진교수가 미네소타대학병원에서 갖가지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들을 대하면서 국내의 당뇨병 분야가 불모지임을 절감하고는 1960년 귀국한 후 학회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설립·추진작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에 있어서의 당뇨병의 연구관리 및 계몽을 추진하고 국제학회와의 유대를 긴밀히 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존재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학회결성을 위해 빈번한 의견교환 및 준비를 시작한 후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1960년 10월 초순 12명의 발기인회를 구성하였다.

학회명칭 및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회원들을 선정하여 만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의 산물로 1968년 10월4일 김응진을 회장, 민헌기, 이상용 양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한국 의학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기게 될 대한당뇨병학회가 발족되었다. 그후 초대 회장 김응진교수로 부터 14대 허갑범교수에 이르기까지 총 7명의 역대 회장이 학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의사·간호사 등 회원으로

1)회원은 창립 당시 30여명에 불과하던 회원수가 현재 의사 및 간호사, 영양사, 사회사업가를 포함해서 6백명으로 늘어났으며 회원 구성은 평생회원 1백62명, 일반회원 4백38명으로 되어 있다.

2) 학회기구(표참조)를 보면 학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제의 기본골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장은 학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학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를 비롯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현재의 학회기구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 허갑범 △부회장 : 신순현·이홍규 △총무 : 이현철 △재무 : 김태화 △위원장 : 손호영·김광원·신순현·이홍규·이광우·최동섭·김선우 △감사 : 김진우·정민영

학회지 계간으로 발행

1)학술대회는 1970년 6월 서울에서 제1차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1981년 제8차 학술대회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1~2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참여회원수의 증가 및 연구발표 논문수의 신장으로 인하여 매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85년부터는 제1차 춘계학술대회를 시점으로 정기학술대회를 매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9차 춘계학술대회 및 21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95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9차 춘계학술대회의 내용을 보면 심포지엄 6편, 특별강연 1편, 연수강좌 3편, 일반연제 37편, 포스터 10예가 전시 발표되었다.

2)학술상 및 의학상으로는 1986년 본 학회 명예회장인 설원(雪園) 김응진회원이 당뇨병학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연구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제에 대해 매년 1~2편을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설원연구비를 비롯하여 3종의 학술상과 3종의 의학상이 있어 회원들의 학문적 의욕과 연구업적을 향상시키고 있다.

3) 학회지는 전 회원들 각자의 다양한 기초와 임상연구에서 이루어 내는 당뇨병학 분야의 업적들은 대한당뇨병학회 학술지인 「당뇨병」에 게재되고 있다. 1972년 3월 당뇨병학회지가 창간된 이래 1983년까지는 2년에 1권씩 발간되어오다가 1985년부터는 1년에 2호가 발간되는 발전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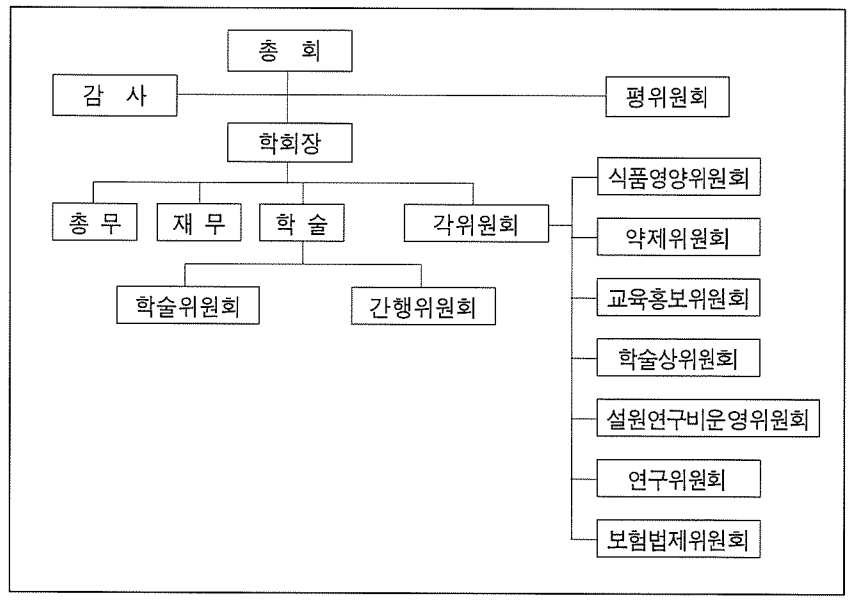
1992년부터는 회원들의 왕성한 연구업적에 힘입어 연 4호가 발간되고 있다. 또한 게재되는 논문들은 간행위원회에서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 엄선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되고 있다.

더불어 연구업적의 기록 발간 작업은 면밀주도한 학회의 노력으로 1986년 제1차 영인본 발간 후 현재까지 제4차 영인본이 발간되었다. 이와 같은 학술지를 통한 학술연구 업적의 교류와 발전은 1992년 당뇨병학회 모든 회원들의 학문적 정열과 열성으로 당뇨병학 교과서 「당뇨병학」을 발간하였다.

4)국제학술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중인데 1972년 세계당뇨병학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1973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당뇨병학회에 김응진명예회장이 참가한 이래 1994년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었던 제15차 세계당뇨병학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수준 높은 연구업적을 발표 토의하였고, 이러한 참여와 노력은 대한당뇨병학회가 세계 1백여개 당뇨병학회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회원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한 당뇨병분야에서 한·일간의 상호관계를 다져야겠다는 의지들이 결합되어 1981년 10월 한·일 당뇨병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격년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번갈아 오가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1995년 10월 일본 우베에서 제8차 한·일 당뇨병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표〉학회기구표



아울러 1993년 4월 IDF(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Western Pacific Region Congress가 서울에서 대한당뇨병학회 주최로 개최되었는데 국제 당뇨병협회 회장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당뇨병학자들과 서태평양 지역국가들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룬바 있다.

1백20개 당뇨병교실과 제휴

창립이래 전 회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오늘의 학회로 발전시킨 것은 더없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되고 내실있는 학회로 도약하고 연구정진하고자 당면한 몇 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실제 임상적인 측면의 질적 고양을 위해 춘·추계 학술대회와 병행하여 당뇨병 환자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함과 동시에, 「당뇨병의 진료지침」, 「당뇨병의 식품교환지침」 등의 학회지침서를 발간하여 전국적인 당뇨병 환자의 임상진료 실시상의 질적 향상 표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둘째, 당뇨병 관리의 절대적 방안의 하나인 당뇨병교육에 관한 지식과 실제의 향상을 위하여 1991년 제1회 '당뇨병교육자세미나'를 서울에서 가진 이래 1995년 9월 서울 및 지방에서 제6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고, 상설 환자교육기구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1백20개의 당뇨병교실이 개설되어 학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환자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의학통계 조사사업의 하나인 '당뇨병의 전국적 발병률 조사 및 등록 연구' 사업을 현재 전국의 20병상 이상 의료기관 및 당뇨병 클리닉을 개설하고 있는 개인의원에서 새로 진단받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등록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및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젊은 당뇨병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의 기초 및 임상연구에 필요한 역학, 유전 및 면역학, 분자생물학적 기술에 관한 당뇨병 연구 워크숍을 연1회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인 당뇨병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당뇨병 학회 회원들 간의 혹은 의료인들 간의 활동 못지 않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당뇨병 계몽이다. 이미 '세계 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을 기념하여 대한당뇨병학회는 1992년 11월 조선일보사와 공동으로 성인병으로는 한국 최초로 제1회 '당뇨병 주간'을 창설하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10대 도시에서 시민공개강좌, 무료혈당측정 및 환자 개별상담 등의 당뇨병 행사를 대대적으로 가진 이래 매년 11월에 당뇨병 주간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을 위한 당뇨병 교육책자인 당뇨병 소식지도 발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당뇨캠프의 사업활동면면을 살펴보면, 일찍이 소아당뇨캠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태희교수가 1981년 국내 최초로 캠프를 개설한 이래 1994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소아당뇨캠프가 개최되었으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에서 소개한 대한당뇨병학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당뇨병 정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이러한 모든 성과는 대한당뇨병학회 전 회원의 정성어린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현철〈연세대의료원 내분비내과〉

• 해외소식

당뇨병의 유전자 치료법 개발

일본 오사카대학 연구팀은 혈당치를 내리게 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당뇨병 환자의 간 등에 공급하는 새 치료법을 최근 개발했다.

이 치료법은 유전자를 극소캡슐에 넣어 환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아직 인체 실험은 하지 않았으나 임상에서도 성공할 경우 현재 하루 몇차례씩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도 월 한차례 주사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당뇨병을 일으킨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새 치료법을 실험한 결과 혈당치가 2/3로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보통 당뇨병에 걸린 실험용 쥐는 한달반이 지나면 절반이 죽으나 유전자를 사용해 치료한 쥐는 거의 죽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말했다.